

서울 국제종합電氣機器展

개최계획

李 愚 公

商工資源部 電機工業課長

1. 전시회 개최배경

우리나라 電氣機器産業은 2000년대를 향한 도약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重電機器發展 5개년 계획”(’91~’95)에 힘입어 重電機器産業의 기반기술이 그 틀을 잡게 되었다고 보고 2000년을 향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구축해 가고 있다.

지난해인 '92년에는 重電機器의 총생산이 50억불(약 3조 7천억원)에 이르게 되었고 수출도 13억불(약 9천 5백억원)로 늘어나 세계 12위권의 重電機器工業國으로 성장하였으나, 세계의 시장규모 3천1백억불에 비하면 우리의 시장규모는 세계의 6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 工業先進國들은 후진국에 대한 무역개방 압력을 가증하는 한편 重電機器의 自動化·電子化를 위한 신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범세계적인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상황 속에서 우리 重電機器産業이 工業先進 大國에 끼어들기 위해서는 제도약을 위

한 고도의 전략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상공자원부는 重電機器産業을 집중 육성시켜 2000년에는 세계 8위권 이내로 끌어올리고 연 400억불의 생산을 달성하여 세계 重電機器 수출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重電機器産業의 中長期發展計劃”을 구상중에 있다. 그 기본방향은

- ① 기술개발 체제의 확립 및 투자의 확대,
- ② 산업의 고도화로 국제경쟁력 강화,
- ③ 핵심기술과 고부가가치상품의 집중개발,
- ④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체제 구축,
- ⑤ 신기술 및 시장정보 확보를 위한 정보센터의 설립,
- 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의 개선

등이다.

상공자원부는 2000년대를 향한 重電機器産業發展戰略의 일환으로 서울國際綜合電氣機器展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본 電機展示會의 목적은 국제경쟁력의 제고와 국내 상품의 소개를 통한 수출향상 그리고 새로운 국제기술과 상품에 대한 국내업체들의 인식 전환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重電機器産業은 전력수요의 성장에 힘입어 내수 위주의 성장을 하였으며, 지난해인 '92년의 전력수요는 1,152억 kWh로 세계 20위의 전력수요국이 되었으나 2001년에는 전력수요가 2,159억 kWh로 늘어나 현재의 약 2배로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重電機器 수요도 이에 비례하여 현재의 60억불 수준에서 200억불 수준으로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 重電機器産業은 이제까지 정부의 보호 아래 국내수요 특히 관남 위주로 성장하여 국제경쟁력이 아주 약하고 제품의 생산도 외국기술의 모방에 의한 조립식 위주의 생산으로 기술 기반이 약한데다가 핵심소재 및 부품의 제조기술이 일천하여 제품의 품질저하, 신제품의 개발저조 등 기술적인 면에서 선진국 또는 경쟁대상국에 크게 떨어져 있다. 특히 최근 수년 동안 연 10%~20%의 임금인상, 10% 이상의 금리부담, 공장용지 가격폭등, 단위생산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가격경쟁력마저 떨어져 외국 바이어들이 등을 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도 점차 외국의 제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쟁력의 약화현상은 경제성장률을 3~6%에 머물게 하고 설비투자도 위축시켜 장기적인 경기의 침체가 야기됨에 따라 업계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국내시장의 개방압력이 강하게 밀려오고 있어 현상태에서 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 重電機器産業은 극심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상공자원부에서는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에 1,200억원의 중전기 기술개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업계의 생산활동 촉진을 위하여 각종 규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가고 있다. 또 최근에는 신정부의 경제회생정책에 힘입어 업계에 대한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 규제완화, 제도개혁 및 경제주체의 의식개혁 등을 통하여 제조업과 수출산업에 경쟁력을 제고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重電機器産業이 2000년대에 세계

8위권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체가 기술개발투자를 보다 더 확대해 나아가야 하고 인재의 양성과 신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 및 강화 그리고 신상품의 개발과 상품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여 産業의 國際化, 商品의 國際化를 기하여야 한다.

이번 國際展示會의 개최계획은 국내업계에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고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업계가 이를 계기로 외국의 신기술 및 신상품의 개발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기술과 상품을 세계시장에 내놓아 세계유수의 重電機器 업체들과 기술과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국내업계에 신상품에 대한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제품의 품질향상과 고부가가치화 인식제고 및 세계 바이어들과의 수출상담 기회제공으로 수출증진에도 크게 기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종합전시회 개최계획

국제전시회는 오랜 전통과 세계 우수업체들의 참여 및 바이어들의 많은 참관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우리는 이제야 국제전기전시회의 원년을 맞이하려 하고 있으며 처음 개최될 이 전시회가 대성황을 이루어야만 차기 전시회의 유지는 물론 국내 電機業界가 성장 및 수출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공자원부는 본 전시회의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가 주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도록 하고, 국내 電機工業體의 집결체인 韓國電機工業振興會와 國外에 많은 지점과 무역에 관한 기술과 정보를 갖고 있는 大韓貿易振興公社를 本展示會의 추진주체로 선정하였다.

전시회의 개최시기는 '94년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5일간이며 電氣機器의 기술개발상황과 新製品의 개발주기를 고려하여 매 2년마다 개최할

계획이다.

전시회의 개최장소는 한국종합전시장 대륙관으로 총면적은 3,142평이며 그 안에는 重電機器 종합관, 전선관, 용접기기관, 산업용 에어컨관, 건전지 및 축전지관, 전기제어기기관, 소형전동기 및 부품관, 산업전력관, 관련단체 산업홍보관 등 9개관과 외국업체를 위한 외국관 등 모두 10개의 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각관별 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각 전시관의 규모>

전 시 관 명	규모(㎡)
중 전 기 기 종 합 관	4,472
용 접 기 기 관	800
산 업 용 에 어 컨 관	420
소 형 전 동 기 및 부 품 관	390
관 련 단 체 산 업 홍 보 관	700
전 선 관	900
건 전 지 및 축 전 지 관	460
전 기 제 어 기 기 관	676
산 업 전 력 관	1,000
외 국 관	1,000
총 계	10,368㎡ (3,142평)

본 전시회에 전시할 품목은 발전기, 전동기, 전동공구, 모터 등 회전기기류와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배전반, 제어반, 무정전원장치, 전력제어기, 송·배전설비 등 전력용 정지기기류 그리고 전기용접기, 전기로, 전선류, 축전지 및 건전지 등이다.

내년에 개최할 이 전시회에는 총 150여개사를 참여시킬 예정인데 그중 국내업체는 120여개 업체가 참여하게 될 것이며 외국에서는 15개 국가에서 30여개 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 이 전시회를 참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약 1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내국인은 약 9만7천명, 외국인은 3천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국내에서는 전기관련 산업체는 물론 학계, 단체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관이 있어야 할 것이며 외국인은 대부분 바이어와 전기산업과 관련이 있는 자가 될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년에 개최될 전시회를 국내의 전자기기전시회나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인접국의 유사한 전시회와 연관하여 개최하는 것이 바이어의 유치면이나 관람객의 확보면에서 바람직할 일이겠으나, 국내 유일의 전시장인 한국종합전시장의 장소 협소로 전시장이 확보되지 않아 국내의 유사 전시회와 연관하여 개최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모든 상품의 국제화에 대비하여 제2의 종합전시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전시회는 추진의 효율성과 국내의 업체들의 참여 및 바이어들의 많은 참관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인데, 주관기관으로는 한국전기공업진흥회와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협찬기관으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한국전지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을, 후원기관으로는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기사협회와 기술세미나를 담당할 한국전기연구소, 한국전기학회 및 홍보분야로서 전기신문과 전자신문을 각각 선정하였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전시회의 세부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 및 국내업체의 참여유도, 전시회 홍보 및 내국인의 전시회 참관유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전시회 추진지원업무, 외국업체와 바이어들의 참여유도, 외국에 대한 홍보 및 안내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의 각종 정보와 기술자료를 수집·제공하도록 큰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중전기기의 대수요자로서 본 전시회에 전력공급체계, 에너지절약 및 원자력안전에 관한 종합홍보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과 사고예방에 관한 홍보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전시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전기의 소비절약, 전기안전 및 원자력안전에 관한 대국민홍보도 병행하여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 국

내 전기관련단체들도 국내의 업체들의 전시회 참여유도와 홍보업무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특히 소속회원들의 전시회 참관을 적극 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전시회의 부대행사로써 전기기술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 세미나 주제로는 2000년대의 중전기산업전망, 배전자동화 기술개발 현황,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며 외국의 연구기관도 이 세미나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3. 기대효과

내년에 처음 개최될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성황리에 개최될 경우 우리나라의 중전기 업체들은 기술의 고도화 및 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수출도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전시회의 개최로 미국, 일본, 구라파 등 工業先進國들의 첨단기술 보유업체들이 신상품 전시와 신기술 소개로 우리 업체들은 새로운 기술정보의 획득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신상품의 개발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게 될 것이며, 외국 先進業體들의 상품과 우리 상품을 비교·평가함으로써 우리 상품에 대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 상품의 高品質, 高信賴性 확인 등 국내 산업의 발전된 모습을 국내외에 보여줌으로써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를 촉진하여 무역역조 개선의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외국 先進業體들과의 상호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기술 및 정보의 교류, 기술자의 상호방

문, 공동연구개발 및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기술능력의 극대화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년 전시회 기간 동안 외국 바이어들과의 활발한 수출상담을 전개하여 2억불의 수출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본 전시회를 통하여 우리 重電機器業界는 재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2000년대의 세계 8위의 重電機器 韓國을 건설하는데 큰 어려움없이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력홍보관을 통하여 전기의 절약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전기안전사고의 예방대책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관한 국민적 이해를 증진시켜 줌으로써 대국민홍보전략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2000년대 세계 8위의 重電機器 韓國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電機業界가 외국의 신기술·신상품의 개발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상품과 우리 기술을 비교·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기술개발과 상품의 국제화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인식의 대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를 위하여 상공자원부는 '94년에 서울에서 국제종합전기기기전을 개최하기로 한 것이며, 이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만 우리 전기업체가 새로운 활력을 찾아 세계 重電機器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는 전기업체뿐만 아니라 전기분야에 종사하는 “전기인”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력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 전기인은 너와 나를 “우리”로 묶어 이 전시회의 개최준비에 동참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지도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